

월요논단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도시재생과 지역통합돌봄 단상

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는 자립적이고 활동적인 건강한 어르신들의 비중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논의 자리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시기 적절한 논의의 주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주제에서 알수 있듯이 도시재생은 국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고 고령자 커뮤니티케어는 보건복지부 주도의 정책사업이다. 도시재생과 고령자 커뮤니티케어를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보려는 시각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적 관계성의 문제이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보완적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은 이제 예방적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의료와 보건 서비스보다는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오프라인 유지를 넘어 온·오프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밝고 건강한 노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은퇴자 주거 복합단지 모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양로시설도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기능을 전환해 나가는 정책과 시설기능의 공간적 범위를 보행권 단위를 중심으로 고령자의 주거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노인복지법 체계상 지역거점 시설과 전문기능적 시설로서의 기능적 전개를 일정 부분 담당이 가능하지만 일상적인 생활공간까지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는 개인·의원을 비롯하여 파출소, 목욕탕, 초등학교, 경로당 등 잠재적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

역사회의 자활활동은 기존의 지역사회 공간을 매개로 한 복지활동과 근린관계의 형성을 상호 연계해 주민 복지조항을 통한 주민주도의 돌봄사업을 통해 이른바 복지커뮤니티형성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지역주민의 활용에 의한 고령자용 소규모 복지 시설 조성 및 주민의 복지활동 속에서 주민 스스로가 직접 참가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고령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제공과 함께, 복지에 대한 주민의 의식 향상, 자유스러운 주민 상호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복지사회의 구축으로도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시설자원 활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지역통합돌봄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 노인복지법 개정과 아울러 학교관련법, 지역복지협동조합의 설립지원과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월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도시 재생과 연계한 고령자 커뮤니티케어 실현-은퇴자 주거복합단지 모델 도입진단'이라는 다소 긴 주제의 세미나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됐다. 최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통합돌봄사업은 넓은 의미에서 고령자 커뮤니티케어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통합돌봄사업은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 중 희망자에 한해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서 정부와 적절한 돌봄(케어)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목적을

사설

코로나19 잇따라 확진, 추가 발생 막아야

제주지역도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뚫렸습니다. 그동안 감염자가 없었던 제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달간 확진자가 없었던 제주마저 방역에 실패한 것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21일 오전 군인 A(22)씨를 코로나19 확진자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휴가로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고향인 대구에서 보낸 후 제주에 있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A씨는 19일부터 목이 간지럽고 기침 증상이 나타나 20일 양성 반응을 보이자 제주대병원에 격리됐습니다. A씨에 이어 22일에도 제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 지역 WE호텔에 근무하는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출신인 이 여성은 지난 13일 항공편을 이용해 대구를 방문한 뒤 16일 오전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만 해도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으나 그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주도는 도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던 제주마저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긴급방역 등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짝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도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제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안타깝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만으론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실천하는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달려있습니다.

열린마당

코로나19와 가짜뉴스



윤선웅
서귀포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지 또는 비난할 목적으로 왜곡·조작해 만든 허위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바이러스트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서로 도우며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이런 시기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을 지피는 '카더라' 식의 헛소문이 나돌고 있다. 심지어 언론사 보도자료나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로 착각하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져 인터넷이나 SNS상에 무책임하게 배포되고 있다.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하면 형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경찰은 가짜뉴스 및 중간 유포자들을 철저히 찾아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 이상 가짜뉴스 작성과 유포를 가버운 장난이나 일탈로 생각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처벌까지 받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는 모두가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는 가짜뉴스 없는 성숙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만들어나가 행복 가득하고 깨끗한 제주도가 되길 바란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제주에서도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어 코로나 예방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하지만 늘어난 것은 코로나 환자만이 아니다. 코로나에 대한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
현재 인터넷과 SNS를 기반으로 누구나 영상을 제작하거나, 글을 작성해 쉽게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나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지

뉴스-in

“항당한 소문, 법적 대응하겠다”

상대후보 악성 루머 확산
○...4·15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대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악성루머가 퍼지고 있어 해당 후보진영이 당혹.
제주도 내 한 선거구 경선 후보확정을 앞두고 '모 후보가 중앙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악성 루머가 시중에 확산되자 해당 후보측은 소문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정보력을 총동원.
해당 후보측은 "최근 참으로 항당한 소문을 접했다"며 "누가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지 사실 확인을 거두고 법적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언급.
고대포기자
○...제주시는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무장과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 기반 마련을 위해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찾아가는 청렴·직무교육을 마련.
26개 읍면동 주민센터 및 9개

외청을 방문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더 청렴함으로, 시민의 믿음을 키우는 제주도'를 주제로 부패예방 의식을 고취할 방침.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 제주시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다짐.
이윤형기자
서귀포청사 출입구 일원화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휴식나 모를 청사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24일부터 1청사 출입구 일부를 통제.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본관 정문·후문, 별관 정문 등 3곳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고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은 전면 통제되는 데, 출입구마다 발열 체크와 민원인 동의하에 방문기록부도 작성.
시 관계자는 "출입구 일원화는 청사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행정이 마비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민원인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
문미숙기자

제주시의 가로수 행정, 이래도 되나

제주시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중 상당수가 병원균 감염에 의한 고사로 밀등만 남겨 잘린 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제관광지 관문인 제주시가 숲의 도시 조성을 위한 '가로수 행정'에 불신이 서는 이유입니다.
제주 도착 관광객의 첫 제주인상은 공항을 나서 마주치는 연동신대로(신시가지)와 용문로(구시가지) 가로수 모습에 크게 좌우됩니다. 도시 이미지를 결정짓는 주요 도로에 상당수 가로수들이 잘려 수년간 밀등만 남아 있고, 결과적으로 남은 가로수들을 띄엄띄엄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관광도시를 지향한다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연동신대로 일대 가로수 답발수의 경우 식물 병원균인 파이토플라스마(Phytoplasma) 감염으로 고사해 벌목에 나서면서 답발수 130여그루 중 현재 54그루만 남았습니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병원균 감염으로 고사된 답

발수는 300여그루에 달합니다.
관광도시 주요 도로변에 밀등만 남겨 잘려진 가로수들이 쉽게 눈에 띄는 정도로 흉물스러운데도 수년째 행정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제주시가 그간 "벌목된 가로수 뿌리가 인도와 도로 밑까지 넓게 퍼져 있어서 이를 제거하려면 대규모 공사를 나서 마주치는 연동신대로(신시가지)와 용문로(구시가지) 가로수 모습에 크게 좌우됩니다. 도시 이미지를 결정짓는 주요 도로에 상당수 가로수들이 잘려 수년간 밀등만 남아 있고, 결과적으로 남은 가로수들을 띄엄띄엄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관광도시를 지향한다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연동신대로 일대 가로수 답발수의 경우 식물 병원균인 파이토플라스마(Phytoplasma) 감염으로 고사해 벌목에 나서면서 답발수 130여그루 중 현재 54그루만 남았습니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병원균 감염으로 고사된 답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고득영(공인증개사) 아버지 제주고공 진옥(요섭·향년 82세)께서 서기 2020년 2월 22일 09시경에 선종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2월 24일(월요일)
▶발인일시: 2020년 2월 25일(화요일)
※장례미사: 오전 10시 천주교 동문성당
▶빈 소: 천주교 동문성당
▶장 지: 양지공원
부인 문정순(내과)
아들 고득영(배드민)
봉수(요섭) 며느리 이미화(안과)
딸 고혜경(내과)
손녀 고은비(요섭) 외손자 임동혁(아과)
외손녀 임성경(내과)

부고
흥기문(前 삼성전자 근무) 어머니 인동장씨 계생(향년 88세)께서 서기 2020년 2월 23일 00시 38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일 포: 2020년 2월 25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2월 26일(수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용강 선영
아들 흥기문 며느리 정혜정
기철 임향심
기석 양근숙
딸 흥희순(내과) 사위 임석홍
은순(내과)
손자 흥석우 외손자 임정철
석균 임정훈
승완 오승정
유정 지연
※연락처: 흥기문 010-8967-0077
흥기철 010-3690-7144
흥기석 010-2698-9549
임향심 010-3690-8450
양근숙 010-6583-9292

부고
김성보(제주시수협 조합장) 어머니 신현강씨 순춘(향년 92세)께서 서기 2020년 2월 23일 09시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2월 24일(월요일)
▶발인일시: 2020년 2월 25일(화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함덕제주장례식장
▶장 지: 종달리 선영(종달리4258-1)
아들 김성훈 며느리 임정자
성보 고미경
성오 함흥심
성택 고영실
딸 김성희 사위 고창열
성순 공창식
※연락처: 김성훈 010-2697-3459
김성보 010-9898-7098
김성오 010-8667-9526
김성택 010-9988-5189
김성희 010-9021-3454
김성순 010-4925-8121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권위오공 성홍(향년 95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2월 24일
아들 오만식 며느리 현영자
오영욱 사위 한진옥
영매 고장림
영심 강동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평문공 병하(향년 91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2월 24일
아들 문영빈 며느리 김보경
상준 한문희
문영준 사위 강성택
경춘 신현
영실 박철홍
영선 최현규
영매 현영중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 상수(향년 61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2월 24일
부인 박윤희
아들 고봉건 며느리 김은지
봉준
딸 고주연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학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포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